

로맨스 소설에 나타난 ‘아름다운 몸’의 도전과 한계

—김경화의 『성형 신데렐라』를 중심으로—

최 미 진*

차례

1. 서론
2. 리얼리티 프로그램 <도전, 신데렐라>의 패러디와
가부장적 소비자본주의 문화
3. 성형미인이라는 육체자본과 참조적 서사 전략
4. 신데렐라의 ‘통과’ 양상과 자기 정체성의 혼란
5. 결론

1. 서론

지금 한국사회는 몸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쏟아 붓고 있다. 웰빙을 외치며 유기농 먹거리와 건강보조 식품들을 기웃거리는 일이 우리의 일상을 파고든 지 이미 오래다. S라인 몸매를 만들기 위해 피트니스 클럽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받거나 44사이즈 옷을 입기 위해 요요현상을 감수하면서도 각종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동안(童顏)을 만들기 위해 경락 마사지, 피부과, 성형외과 등을 두루 섭렵하기도 한다. 게다가 개성 있는 몸을 연출하기 위해 차밍스쿨에 가입하고 의상, 화장, 액세서리 등을 조언 받는

* 부경대학교 연구교수

다. 우리의 일상적 삶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에서 나아가 이상적인 몸을 가꾸고 변형하는, 다양한 몸의 실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1)

이즈음 미용성형산업의 확대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급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임인숙의 연구에 따르면, 1975년에서 2000년까지 25년 사이에 성형 전문의 수는 의료 전 분야의 전문의 수 증가율의 7.8배를 5배나 웃도는 42.1배 증가했다. 여성잡지 『여성중앙』에 실린 미용성형 광고 비율 또한 1971년 4.6%에 불과하던 것이 2001년 1월호에는 18%에 달한다.²⁾ 특히 1995년 이후 미용성형산업의 확대는 기하급수적인데, 이것은 사회적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껄럽이 1994년 실시한 조사에서 ‘성형수술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13.9%에 불과했으나, 1999년 조사에서는 59%로 4배 이상 늘었다. 뿐만 아니라 1996년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성형수술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뻑뻑이 그 사실을 밝힐 수 있는가’란 질문에 76.5%가 ‘굳이 숨기지 않겠다’고 응답할 정도로 성형은 더 이상 비밀스런 일탈이나 병리적인 자아도취의 산물로 간주되지 않는다.³⁾

이러한 몸에 대한 대중적 실천과 인식은 몸의 정체성을 자아의 정체성으로 인식하는 후기 근대사회의 특성을 띠고 있다. 기든스에 따르면, 후기 근대사회에서 몸은 억압당하는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성찰적인 행위체계의 일부이다.⁴⁾ 몸은 신뢰할 만한 자아감을 구성할 수 있는 토대로 개인의 내적 기질과 태도를 상징적으로 체현한다. 이때 몸 관리 양식은 개인이 선택한 특정한 생활양식(lifestyle)에 따라 형성된다. 그것은 자아 성찰적 기획의 결과물이지만 현대사회의 표준화하는 영향력들과 상호관련성이 있다.⁵⁾

-
- 1) 심광현, 「육체, 무엇이 문제인가?」, 『문화과학』 제4호, 문화과학사, 1993.9, 148쪽.
 - 2) 임인숙, 「한국사회의 몸 프로젝트: 미용성형 산업의 팽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6권 제3호, 한국사회학회, 2002, 190쪽과 195~196쪽.
 - 3) 임인숙, 위의 글, 184쪽 재인용.
 - 4) 앤소니 기든스, 권기돈 옮김,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새물결, 1997, 146~147쪽.
 - 5) 앤소니 기든스, 위의 책, 43~44쪽.

후기 근대사회에서 몸은 근대사회에 비해 능동적이지만 여전히 그 사회문화적 조건들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 개인의 몸 관리 양식은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사회적인 몸 프로젝트의 합정을 내재하고 있는 셈이다.

부르디외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몸 관리가 계급에 따라 차별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몸을 개인이 속한 사회계급의 육체적 성향과 습성이 체현되어 있는 문화자본의 한 형태, 즉 육체자본으로 본다. 그러나 육체자본을 생산하는 몸 관리 양식은 민중계급일수록 몸과 도구적 관계를 맺는다. 민중계급에게 육체자본은 곧 경제자본으로 전환되는, 목적달성의 수단이지만 그 전환은 제한적이다.⁶⁾ 이에 비해 지배계급은 육체자본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며 다양한 몸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있다.⁷⁾ 그리고 경제자본이나 사회관계자본으로 쉽게 전환된다. 이렇듯 몸의 실천은 사회 공간상의 위치와 궤적뿐 아니라 계급 내부에서도 육체자본의 양과 질의 정도, 성(性), 연령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몸 프로젝트는 어떻게 작동되는가. 한국사회의 몸 관리 유행을 분석한 최근 연구들⁸⁾은 몸 프로젝트의 대표적 변수로 대

6) 피에르 부르디외, 최중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권, 새물결, 1995, 342~343쪽.

7) 지배계급 내부에서도 몸 자체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실천의 내재적-외재적 이익이나 비용을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교수 층의 귀족적 금욕주의는 '자기 자신의 몸을 정복하고 있다는 느낌'에 집중한다. 이에 반해 물질적-문화적 수단을 소유한 현대의 관리직은 '속물적인 대중들이 근접할 수 없는 경치를 향유한다는 느낌'을 중시하는 건강한 쾌락주의를 드러내는데, 경영자 층은 건강한 쾌락주의와 함께 별도의 외재적인 이익, 예를 들어 사회관계자본을 축적하고자 한다. 피에르 부르디외, 최중철 옮김, 위의 책, 352~353쪽.

8) 몸 관리 유행과 관련된 연구들은 2000년 이후 급증하였으며, 대표적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정주원, 『몸의 소비문화적 의미와 현상에 대한 고찰』, 『소비문화연구』 제9권 제1호, 한국소비문화학회, 2006, 83~101쪽.; 유창조·정혜은, 『소비자의 아름다움 추구행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남성의 치장과 여성의 화장, 성형 및 피트니스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소비자학회, 2002, 211~232쪽.; 윤태일, 『여성의 날씬한 몸에 관한 미디어 담론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48권 제4호, 한국언론학회, 2004, 5~31쪽.; 윤태일·이명천, 『텔레비전 시청이 육체이미지 혼란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역할과 "육체이미지 처리"의 매개역할』, 『한국방송학보』 제16권 제3호, 한국방송학회, 2002, 331~363쪽.; 임인숙, 『다이어트의 사

중매체, 외모중시의 사회풍조, 소비자본주의 문화 등을 꼽는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규범화하는 한국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몸 관리 유행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대부분 여성이다. 여성이 '아름다운 몸'을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육체자본의 효과가 직접적인 한국의 사회문화적 조건에 힘입은바 크다. 외모중시의 사회풍조는 아름다운 외모나 몸이 경제자본이나 사회관계자본으로 쉽게 전환하도록 한다. 이와 맞물려 몸 관리 산업은 각종 소비재를 개발하여 그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⁹⁾ 특히 대중매체는 여성이 몸 관리에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부추기고 있다. 대중매체는 현대인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 아름다운 외모와 이상화된 몸 이미지를 확일적으로 유포한다. 대중매체에 대한 수용자의 관심이나 내면화 정도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¹⁰⁾ 가공된 대중매체 속의 몸 이미지는 여성이 자신의 몸을 평가하는 준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성들은 대중매체가 유포한 이러한 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몸을 가꾸고 변형하는 일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리얼리티 프로그램 <도전, 신데렐라>이다.

회문화적 환경: 여대생의 외모차별 경험과 대중매체의 몸 이미지 수용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8권 제2호, 한국사회학회, 2004, 165~189쪽: 임인숙, 「한국 사회의 몸 프로젝트: 미용성형 산업의 팽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6권 제3호, 한국사회학회, 2002, 183~205쪽: 정재철, 「한국의 여성 몸담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몸의 시대, 살빼기와 성형 열풍」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7권 제1호, 한국지역언론학회, 2007, 292~318쪽: 정희준·박수정, 「소비자본주의적 몸의 등장과 운동의 사회문화적 의미의 변화」,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18권 제1호,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005, 119~133쪽: 최옥선, 「여성잡지에 나타난 몸담론 연구-성형의료산업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제46집, 한국출판학회, 2004, 261~313쪽: 황유지·이상훈, 「육체관리행위와 여성 정체성-스포츠센터 여성이용자에 대한 참여관찰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7권 제3호, 한국지역언론학회, 2007, 404~433쪽.

9) 특히 남성이 외모 관리의 새로운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이에 대한 연구는 임인숙, 「남성의 외모관리 허용수위와 외모불안지대」, 『한국사회학』 제39집 제6호, 한국사회학회, 2005, 87~118쪽을 참고할 것.

10) 맥켄일·원달, 임상원·유종원 옮김, 『커뮤니케이션 모델: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이해』, 나남, 2001, 임인숙(2004), 앞의 글, 170쪽 재인용.

여성전문 케이블 방송인 동아 TV에서 방영 중인 <도전, 신데렐라>는 공개 선발된 시청자에게 성형수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들의 모자란 '美'를 채워주어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겠다는 기획 아래 2003년 12월 8일에 첫 방송을 보낸 이래 현재 제6기를 맞고 있다.¹¹⁾ 도전자를 선발할 때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프로그램 신설 당시부터 여러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방송위원회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편성 책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여러 차례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여러 시즌이 제작되고 있다.¹²⁾ 이러한 비난과 관심은 한국의 몸 관리 열풍과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하위문화 텍스트의 창작과 수용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글은 동아 TV의 <도전, 신데렐라>를 패러디한 창작 로맨스 소설 『성형 신데렐라』¹³⁾를 대상으로 몸의 서사화방식을 로맨스 소설의 장르적 규범 및 소통방식과 관련지어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로맨스 장르에 대한 폄하된 시선을 차치하고서라도 후기 근대사회를 살아가는 한국 여성의 위상과 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으리라 본다.

2. 리얼리티 프로그램 <도전, 신데렐라>의 패러디와 가부장적 소비자본주의 문화

『성형 신데렐라』는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한 국내 창작 로맨스 소설이다. 이민 2세 이유진이 「도전! 신데렐라」¹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형한

11) 제5기를 방송중인 2008년 현재 <도전, 신데렐라>는 <New 도전, 신데렐라&미니 변신>으로 변화·발전하였는데, "일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유리구두가 되어 한걸음씩 세상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도로 대상을 확대하고,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http://www.dongahtv.com/program/cinderella/>

12) 김정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수용 특성에 관한 연구-<도전, 신데렐라>를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5, 3~4쪽.

13) 김정화, 『성형 신데렐라』, 문진미디어, 2006. 이하 인용은 쪽수만 밝히기로 하겠다.

후 재벌인 로건 알렉산더를 우연히 만나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성공한다는 이야기이다. 국내 창작 로맨스는 1990년대 초반 이래 여중고생들에게 인기를 누렸던 할리퀸 문고나 순정만화의 독서 체험, 트렌디 드라마의 시청 경험 등을 토대로 창작된 성인용 로맨스 소설이다. 인터넷 소설로 불리는 하이틴 로맨스 소설과 달리 20대에서 30대 초반 여성을 주된 독자층으로 삼는 창작 로맨스 소설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이야기하는 보수적인 소설”이다.¹⁵⁾ 이 소설은 모험적인 연애에 뛰어드는 여성이 돈과 권력을 가진 멋진 남자라는 솔깃할 만한 세속적 가치 위에 사랑받는다.는 충만함을 엮어 놓은 로맨스 소설의 공식성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¹⁶⁾

『성형 신데렐라』는 여성 주인공 이유진의 ‘성형’이라는 낯선 사건이 서사를 추동하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로맨스 소설에 친숙한 독자들은 ‘사건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보다 ‘어떤 사건을 보여줄 것인가’에 관심을 둔다.¹⁷⁾ 그러니까 로맨스 소설의 선택과 독서행위는 독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새로운 사건의 설정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다. 이 소설은 이유진의 ‘성형’을 새로운 사건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둘러싼 작중인물들의 내외적 갈등을 서사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성형 신데렐라』는 미국 ABC에서 방영된 ‘Extreme Makeover’를 모태로 삼은 동아 TV의 <도전, 신데렐라>을 패러디하여 이유진의 ‘성형’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유진이 「도전! 신데렐라」에 참여하여 선정된 것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이다. 「도전! 신데렐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시청자들의 사진과 사연을 받고, 방송국 측에서 수술이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을 추천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것은 <도전, 신데렐라>가 독자적인 홈페이지

14) 「도전! 신데렐라」는 소설 속의 프로그램을, <도전, 신데렐라>는 동아TV의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15) 한미화,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장르소설-국내 창작 로맨스 소설의 현황」, 『북패밀리』 2004년 여름호(제5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4.8, 193~196쪽.

16) 우지연, 「꿈꾸는 세계가 있는 자만이 장르를 지지한다」, 위의 책, 46쪽.

17) 송경아, 「장르문학과 순문학의 벽을 넘어서」, 위의 책, 54쪽.

이지를 개설하여 시청자들의 참가 신청을 받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선발 방식은 상이하다. <도전, 신데렐라>는 매 기수별 5명의 출연자를 2단계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매주 출연자의 변신모습을 시청자의 '포인트 점수' 이벤트와 연계하여 매 기수 최고의 성형미인을 선정한다.¹⁸⁾ 그러나 이유진이 「도전! 신데렐라」에 신청한 “오만 명이 넘는” 경쟁자를 물리치고 선정된 것은 그녀 앞에 갑작스럽게 카메라를 비추는 순간이었다.¹⁹⁾ 소설 『성형 신데렐라』는 <도전, 신데렐라>보다 극적인 선발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그것은 지리멸렬한 선발 과정 자체보다 선발 이후의 과정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도전! 신데렐라」는 <도전, 신데렐라>처럼 3개월 동안 이유진의 성형 과정을 밀착 취재한다. 이유진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의학적 도움을 받아 변신을 꾀한다. 그녀는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안과 의사들, 헬스클럽 코치와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 수술을 위한 식이요법을 시작으로 안면 성형, 가슴 축조수술, 허리와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지방 제거수술을 받는다. 이는 동일 기간에 다이어트, 피부 케어, 치아 성형 등과 병행한 전신 성형수술뿐 아니라 패션, 헤어, 화장법을 통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의 변신”을 꾀하는 <도전, 신데렐라>에는 미치지 못한다.²⁰⁾ 문제는 이러한 성형이 과연 3개월 만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점이다.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변신 성공이 <도전, 신데렐라>의 선발자 선정과정에서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²¹⁾ 100

18) <http://www.dongahtv.com/program/cinderella/program.asp>

19) 이유진은 메일을 통해 「도전! 신데렐라」 예비 후보자 10명 중 한 명이라는 사실과 사연 확인을 위한 방문 일정을 통보받았으나 선정자 확정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

20) 동아 TV의 <도전, 신데렐라>는 'Extreme Makeover'가 성형수술, 운동요법, 헤어미용, 의상법 수준에서 행한 것보다 전면적인 변신을 꾀하고 있다.

21) <도전, 신데렐라> 1회분에서는 도전자의 선발기준을 '노력을 통해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방송 취지에 부합되는 사람', '끼가 많아 방송에 적절한 사람', '3개월 동안 방송 효과가 날 수 있는 사람'이라 언급하고 있다. 다분히 제작진의 의도에 따른 선발과정에 대해 시청자들은 “도전자들이 정말 성형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이냐”라는 비판적 목소리와 함께 “정말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참여를 요구

kg의 이유진이 성형의 흔적을 지우고 60kg으로 감량하여 변신에 성공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즉 허구에 기댄 환상 만들기쯤으로 비춰진다. 그만큼 독자들이 성형 수술의 혁신적인 발전에 경탄할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이유진의 성형 과정은 '先체험 後방송'의 형식을 취하는데, 이것은 「도전! 신데렐라」와 <도전, 신데렐라>가 유사하다. 다만 소설에서는 「도전! 신데렐라」의 마지막 생방송 촬영분을 초점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3개월이 끝난 날, 이유진은 「도전! 신데렐라」의 출연진과 성형에 참여한 의료진, 그리고 관중들이 모여 있는 방송에 처음으로 출연하여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대회에 뽐냈을 때의 반응과 성형수술 과정을 거친 석 달간의 모습”을 “짜막한 영상”으로 다시 확인한 후 이유진이 전신거울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변신을 확인하는 과정은 방송 로비에 들어섰을 때 관중들의 “경악에 찬 환호성”에 버금가는 극적 감동을 전달한다.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며” 변화된 몸매를 확인하고 가뽀함을 느끼는 것과 달리 이유진이 “거울을 통해 정면으로 자신의 몸을 보는” 행위는 성형 과정에서 가중된 불안감과 고통을 한꺼번에 해소할 뿐만 아니라 기대감에 더한 만족감으로 전환시킨다. “눈가가 촉촉이 젖어”드는 감동은 초청된 가족들에게 새로운 인정과 사랑을 확인하면서 보다 강화된다. 그것은 성형을 한 이유진 자신과 그녀에 대한 상호 인정을 자연스럽게 확보하고 있다.

이렇듯 『성형 신데렐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도전, 신데렐라>를 패러디하여 주인공 이유진의 성형을 보다 극적이고 감동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패러디한 대중매체 자체가 환기하는 지배적 해독의 가능성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첫째, 이유진의 성형은 대중매체가 유포하는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획일화된 이미지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몸의 식민화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유진은 성형을 통해 “웨이브 진 윤기 나는 흑단 같은 머리카락, 턱이 조금 각이 졌지만 가름한 얼굴, 짙은 눈썹, 동양인 특유의 쌍꺼풀이 없

는 눈매, 오뚝한 콧날, 그리고 약간은 도톰한 입술에 이어진 적당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선에 이어진 긴 다리”(35쪽)를 지닌 성형미인으로 거듭난다. 그것은 서양인이 생각하는 “코도 낮고, 쌍꺼풀이 없는 찢어진 눈에 동그스름한 이목구비”(146쪽)를 지닌, “밋밋한” 동양 여성의 외모를 배제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늘씬한 키와 몸매를 지닌 서양여성을 닮아 있다. 성형의 기준이 서양여성의 아름다운 미모와 이상적인 몸인 셈이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이처럼 표준화된 몸 이미지가 전면적으로 유포된다는 점은 여성의 아름다운 몸에 대한 기준을 사회적으로 승인하고 미적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열등하고 수동적인 대상으로 억압되거나 남성의 볼거리로 취급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적인 미적 기준에 부합되는 성형은 여성의 몸이 남성의 식민화를 자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성의 몸은 동양적인 가치를 배제하고 서양적인 아름다움을 따른다는 점에서 식민화에 순응하고 있다. 미국사회를 배경으로 하지만 “한국에서 뽑은 미스코리아”도 서양여성의 미적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이유진의 지적을 감안한다면, 이유진의 성형은 남성에 대한, 서양에 대한 이중적인 식민화를 체현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몸의 식민화는 대중매체를 통해 여성의 의식과 무의식에 파고 들어 가는 비가시적인 통제라는 점에서 근대사회보다 더 큰 위력을 지닌 상징적 폭력이 될 수 있다.

둘째, 이유진의 성형은 TV 방송과 다양한 의료진 등이 결탁한 소비자본주의의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성형은 몸의 물적 대상화와 억압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유진의 몸은 수술대 위에서 무력한 물적 대상일 뿐 아니라 수술 후유증과 다이어트²²⁾의 고통 등을 스스로 억압해야 하는 열등한 것이다. 그러나 재미에 대한 시청자의 요구와 산업적 필요가 결합하여 탄생된 리얼리티 프로그램 「도전! 신데렐라」는 이유진의 몸을 몸 해방의 새로

22) 여성의 다이어트는 자신의 신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의 근거에는 신체는 열등한 것이며 따라서 정신의 조종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이성 중심의 위계적 미학이 작동하고 있다. 김주현, 「여성의 몸과 외모 꾸미기-금욕주의와 나르시시즘을 넘어서」, 『미학』 제47집, 한국미학회, 2006, 40쪽.

운 실험을 탐색하는 것으로 이상화한다. 이 프로그램이 내건 <미운 오리 백조 되기>라는 슬로건은 “누구든 행복을 얻기 위해 자신을 개조할 수 있다”는 계몽주의적 이념²³⁾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이념은 방송 제작진과 의료진들이 공모하여 시청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다양한 선발자들의 성공 사례들을 통해 시청자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진작하고 확대시킨다. 성형에 성공한 이유진의 몸은 시청자들에게 몸 해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물질적 대상이자 그들 자신의 욕망을 추동할 유용한 소비재인 것이다. 즉 이유진의 몸은 소비자본주의가 설정한 몸 해방의 이상화된 논리를 체현하는 소비상품으로 물상화되어 있는 셈이다.

이러한 지배적 해독은 여성의 성형이 가부장적이고 소비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지배적 해독이 단선적인 해석과 비판으로 치달아서는 곤란하다. 독자들은 「도전! 신데렐라」를 통해 공론화된 지배적 현실을 직시하고 그러한 현실에 대한 재정의와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²⁴⁾ 적어도 다른 해독의 가능성을 엿볼 수는 있을 것이다.

3. 성형미인이라는 육체자본과 참조적 서사 전략

『성형 신데렐라』에서는 로맨스 소설의 공식성에 따라 성형한 이유진이 겪는 삶과 사랑을 전경화하고 있다. 그것은 「도전! 신데렐라」에 참여한 후 사뭇 달라진 그녀의 현실과 욕망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데, 성형 이전의 모습을 참조하는 서사전략이 두드러진다. 성형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전략은 미용성형 광고에서 성형수술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곧잘 사용하는 것이다. 광고에서 성형 전후의 모습을 비교한 사진들은 성형수술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성형 전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부

23) 샌더 L. 길먼, 광재은 옮김, 『성형수술의 문화사』, 이소출판사, 2003, 39쪽.

24) 김정현, 앞의 글, 53쪽.

정되어야 할 성형 전의 모습과 달리 성형 이후의 모습은 여성의 아름다움과 연결되면서 자신감의 회복과 행복한 삶을 약속한다.²⁵⁾ 이러한 광고 전략처럼 『성형 신데렐라』는 성형 이후 이유진의 달라진 삶이 이전 삶을 참조하면서 전경화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유진의 달라진 삶은 성형미인이라는 육체자본을 토대로 한다. 서사를 추동하는 토대는 성형미인인 이유진의 '아름다운 몸'이다. 아름다운 몸은 이제 육체자본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여성의 자본이나 권력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이유진이 성형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현실로 맞닥뜨리는 사건들을 통해 드러난다. 이 소설에서는 크게 두 측면에서 육체자본이 서사를 추동하고 있다.

첫째, 성형미인이라는 육체자본을 토대로 이유진이 욕망해 왔던 가수의 꿈을 실현시키는 과정을 서사화하고 있다. 그녀는 「도전! 신데렐라」를 계기로 자신의 꿈이 가수임을 가시화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현실화한다. 성형 이전 그녀가 음악을 좋아하고 “한 번 들은 곡은 그대로 따라 부를 수 있”으며 작곡·작사의 자질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은 가족조차 모르던 사실이다. 그러나 「도전! 신데렐라」에 참여한 후 그녀는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혼자 LA에 가서 오디션을 본다거나 클럽 가수를 지망하는 등 도전을 시도한다.

이때 달라진 점은 성형미인이라는 육체자본이 그녀 자신뿐 아니라 그녀 주변 사람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그녀는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앞세우지 않는다. 오디션에 떨어져도 언젠가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꼭 해내리라는 자신감은 그녀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여성으로 자리매김시킨다. 그것은 “오디오형이지 비디오 형 가수가 아니라고 가능성이 없다”는 절망적인 평가 속에서 포기했던 과거의 도전과는 뚜렷하게 대비된다.

그리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성형미인인 육체자본은 어렵지 않게 경제자본이나 사회자본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녀의 아름다운 몸은 주

25) 임인숙(2002), 앞의 글, 197~199쪽.

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특히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음악적 재질을 평가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도 호의적이다. 뮤지컬 오디션에서 만난 요아나는 가수 데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루비어나 클럽 가수 오디션을 제외하고, 그 클럽의 매니저 스테판은 썬 방을 임대해 주며 용기를 북돋워준다. 클럽을 찾은 YN 음반기획사 사장 토니 또한 성형사실을 알고도 신비주의 전략을 동원하여 가수 데뷔를 추진하는 등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호의적인 조력자이다. 그들은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친구’들이기도 하다. 성형 이전 그녀가 학교뿐 아니라 가족에게 “괴물” 취급을 받으며 “왕따”를 당하거나 “주변인”으로 숨죽이고 곁돌았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하겠다. 이렇듯 성형미인이라는 육체자본은 그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과의 관계까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러한 육체자본의 효과는 외모중시적 사회풍토를 문맥화하면서도 성형을 통한 여성의 자기효능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 “예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세간의 인식처럼 외모지상주의를 양산시킬 위험을 내장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성형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유진의 꿈이 달라진 외모만으로 실현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유진은 뚱뚱한 동양 여성의 외모와 소극적인 성격 등이 결합된, 심각한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리면서도 가수, 작곡, 작사를 겸비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의 자질을 씬 없이 갖고 댄스 도전해왔다. 「도전! 신데렐라」를 계기로 이유진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데 당당함과 자신감을 드러내는, 자기효능감을 보여준 것뿐이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한국사회에서 피해갈 수 없는 외모지상주의를 인정함과 동시에 당당한 주체로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그녀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셈이다. 소설에서 ‘얼굴 없는 가수’ 이유진의 노래가 대중들에게 회자되고 개인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끝맺는 것도 성형을 통한 자기효능감의 확인이자 기대심리의 반영이다.

둘째, 성형미인이라는 육체자본을 토대로 이유진이 로건 알렉산더와 사

량을 꿈꾸고 실현하는 과정을 서사화하고 있다. 『성형 신데렐라』는 로맨스 소설의 장르적 공식성, 그러니까 이상적인 남성과 아름다운 여성의 우연한 만남, 극적 갈등, 그리고 행복한 결말²⁶⁾을 따르고 있다. 여기에서 이유진이 사랑을 실현하는 과정은 성형 이전과 대조되는 양상을 참조하며 전경화되어 있다.

이유진과 로건 알렉산더는 로맨스 소설에서 친숙한 주인공, 이상적인 남성과 아름다운 여성에 해당된다. 로건은 185cm가 넘는 키에 단단한 근육질 몸매를 지닌 매력적 이태리게 남성일 뿐 아니라 젊은 나이에 R&C 투자사의 사장에 오를 만큼 사업적 수완과 재력을 겸비한 인물이다. 이유진은 그보다 열등한 사회적 지위에 있지만, 성형미인이라는 육체자본과 미국적 매력²⁷⁾이 그녀를 사랑의 주인공으로 만든다. 두 주인공의 만남은 차량접촉사고라는 우연한 사건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로건은 이유진의 외모에서 “묘한 이끌림”을 느끼고 이례적으로 그녀를 임시 가정부로 채용한다. 여기에서 “묘한 이끌림”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사로잡히는 열정을 의미한다. 열정은 사랑에 있어서 대상 선택의 자유를 정당화시킨다.²⁷⁾ 로건이 열등한 지위에 있는 이유진을 선택하고, 그것을 납득할 만하게 만드는 것도 열정 때문이다.

이러한 선남선녀의 우연한 만남은 성형 이전 이유진의 사랑 이야기와는 대조적이다. 고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분홍 돼지”로 불렸던 그녀는 출중한 외모와 단단한 몸매를 과시했던 라틴계 남성 안드레 크루즈를 짝사랑하다 퇴짜를 당한 경험이 있다. 안드레가 이상적인 몸의 소유자였다면, 그녀는 아름다운 여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4년 동안 짝사랑하고 용기를 내어 고백하는 것도 전적으로 그녀 몫이었다. 결과 또한 안드레에게 “너도 여자야?”(22쪽), “너라는 가시네한테 좋아한다는 말을 듣는 건 내 인생의 최대의 수치야.”(23쪽) 등의 힐난조의 경멸을 받는 것이었다. 결국 “분홍 돼지”

26) 행복한 결말은 육체자본 자체보다 그 ‘통과’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4장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하자.

27) Niklas Luhmann, *Love as Passion: The Codification of Intimacy*, trans. Jeremy Gaines and Doris L. Johns, Stanford UP, 1998, pp.58~75.

라는 육체자본은 상대에게 먼저 다가서는 것조차 거부되는, 그래서 짝사랑만 허락한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그것은 성형미인이라는 육체자본이 로건으로 하여금 먼저 다가오게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소설에서 로건과의 사랑이 발전되는 과정은 “분홍 돼지”였던 과거의 실연이 참조하는 서사 전략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성형 신데렐라』에서 이유진과 로건의 이끌림은 아름다운 몸에서 출발하고, 성적 매력과 성경험의 기억이 그들의 관계를 지탱해나가는 원동력이다. 그들은 상대의 성적 매력과 육체적 이끌림 속에서 긴장감과 즐거움을 동반하는 열정적 사랑을 보여준다. 루만에 따르면, 열정적 사랑은 프랑스로고전주의 시대 귀족들의 혼외정사를 원형으로 하는데, 쾌락과 관능은 수용하지만 결혼과는 분리된다. 열정적 사랑이 지닌 이중성과 역설을 결혼제도로 봉합한 자기 준거적 사랑이 바로 낭만적 사랑이다. 이 소설에서 이유진의 사랑은 열정을 수반하고 있지만 대상 선택의 자유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들의 열정은 성과 결합하여 쾌락과 관능을 재현한다. 그것은 자기 준거적 사랑을 지지하는 낭만적 사랑과 노골적인 성적 묘사로 도배한 음란 소설의 중간쯤에 놓여 있다. 이유진이 처녀성을 간직한 여성이었다는 점은 낭만적 사랑의 가능성을 슬쩍 걸쳐 놓고, 그들의 열정적 사랑을 아슬아슬하게 재현하는 것은 음란 소설적 혐의를 알게 드리우고 있다. 열정적 사랑은 독자들에게 사회적 금기로부터 일탈과 해방감을 만끽하게 하면서도 질서와 안정을 엄격하게 요구한다. 이유진과 로건의 관계가 단속적인 이유도 거기에 있다. 로맨스 소설이 늘 그렇듯 그들은 서로 다른 상황과 기대, 그리고 오해로 말미암아 갈등을 겪지만,²⁸⁾ 갈등의 꼭짓점에는 육체자본이 환

28) 첫 번째 갈등은 그들이 상대에 대한 태도와 기대가 어긋나 있다는 점이다. 로건은 재벌가 출신의 약혼녀와 파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성적 본능과 호기심을 해결할 대상으로 이유진을 곁에 두고 싶어 한다. 이에 반해 이유진은 로건을 “실습대상”으로 삼아 성형미인이라는 육체자본의 효과와 남성 심리를 알아가려 하지만, 정작 사랑에 빠지면서 성형미인이라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불안해한다. 그들의 갈등은 첫 번째 성관계를 한 다음날 이유진이 집을 나가는 것으로 끝난다. 두 번째 갈등은 로건이 사라진 이유진의 행선지를 추적하다 동거 중인 스테판을 동성애자인 줄 모르고 애인으로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가 이유진을 창녀로 취급

기하는 성적 매력과 성경험의 기억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로건이 집안문제 로 파혼을 하고, '얼굴 없는 가수' 이유진의 소속사 YN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인수할 정도로 그녀를 쉽게 잊지 못하며, 이유진 또한 제이슨과 사귀면서도 모멸감을 준 로건을 잊지 못한다. 그렇기에 그들의 재회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언쟁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이끌림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난다. 단속적인 그들의 관계가 위태롭게 유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듯 성형미인이라는 육체자본은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유용하다. 개인적으로는 성공적인 결과를 차지하더라도 가수라는 꿈에 도전할 용기를 북돋우고 자아효능감을 높이며, 사회적으로는 그것이 경제자본과 사회자본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성형미인이라는 육체자본은 새로운 사랑을 꿈꿀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그것은 성형미인 이전의 이유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과거와 대비되면서 외모지상주의적 사회풍조를 여실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4. 신데렐라의 '통과' 양상과 자기 정체성의 혼란

로맨스 소설의 독자들은 작중인물의 내면에 자신을 이입하고 위태위태한 사건에 몰입하면서 마침내 감동받기를 기대한다.²⁹⁾ 통찰과 지성을 요구하는 정교한 플롯과 세련된 문체 등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다. 오히려 단순한 스토리, 안이한 갈등해소 방식, 단조로운 서술기법, 심지어 서사 과정의 오류까지도 질끈 눈감아 준다. 그만큼 독자들은 주인공에게 몰입하고 감동받기를 기대하는 셈이다. 이것은 지배적 해독 대신 대안적이고 저항적

하는 순간 그들의 관계는 소원해진다. 로건은 결혼을 서두르고, 이유진은 제이슨이라는 새 연인이 생겼기에 더욱 그러하다. 세 번째 갈등은 로건이 '얼굴 없는 가수' 이유진의 소속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성형미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다. 이유진은 로건에게 "인조인간" 취급을 당하고, 대중을 피해 기약 없이 한국으로 도피하고 만다.

29) 송경아, 앞의 글, 55~56쪽.

인 해독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성형 신데렐라』는 독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이유진을 향하도록 서사화되어 있다. 그것은 성형을 선택하고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그녀만의 고민들을 독자들과 공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소설 제목처럼 성형이 한 여성을 신데렐라로 만들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성형은 자연으로서의 몸을 거부하고 변형하는 행위이다. 외모 차별적 경험이나 풍토 등 외적인 속박을 거부하고 인간의 역할을 최대한 실행하고자 하는 바람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통과하려는 수단이 성형이다.³⁰⁾ 즉 성형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실체와 내가 옮겨 가고 싶은 이상적 범주” 사이에 배제와 포함이 존재하는 ‘통과’로서 의미를 지닌다.³¹⁾ 그 ‘통과’는 현실적 범주와 이상적 범주를 이항 대립시키고 위계화하는 과정의 산물이다. 거기에는 개인적이고도 사회적인 편견, 통념, 인식 등이 뒤섞여 있다.³²⁾ 그리고 성형이 수반하는 기술적 한계와 미적 기준의 변화는 존재의 불안 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에 성형은 현실과 환상 사이를 위험하게 통과하고 있으며, 그것은 성형수술과 그 이후 전 과정에 걸쳐 있다. 그러한 과정은 육체자본이 형성되고 개인과 사회에 ‘통과’되는 양상을 두루 포함한다. 『성형 신데렐라』에서 이유진이 미국사회에서 신데렐라로 ‘통과’하는 양상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외양적인 ‘통과’는 성형의 신화를 재현하는 듯하지만 결국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한다. 성형은 외양에 있어 “못생긴 뚱뚱한” 이유진을 완벽한 성형미인으로 만드는, 성공적인 ‘통과’를 보여준다. 그 ‘통과’는 신체

30) 샌더 L. 길먼, 앞의 책, 48쪽.

31) 샌더 L. 길먼, 위의 책, 43쪽.

32) 윤태일은 이영자 살빼기 과문을 둘러싼 미디어 담론 분석을 통해 ‘날씬한 몸’과 ‘뚱뚱한 몸’의 이항대립이 함축적인 가치평가를 포함하는 또 다른 이항대립들, ‘아름다움:추함’, ‘건강함:허약함’, ‘자부심:부끄러움’, ‘여성성:비여성성’, ‘운동, 식이요법:성형수술, 약물’, ‘부지런함:게으름’, ‘절제:방종’, ‘자율성:타율성’, ‘권능:복속’, ‘영웅:악당’, ‘행복:불행’ 등으로 변형되고, 그것은 한국사회에서 날씬한 몸의 의미가 신화의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사회적 통과하기 욕망을 충족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윤태일(2004), 앞의 글, 5~31쪽.

적 약점을 치료하여 자신감을 회복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성형수술의 신화에 바탕을 둔다.

성형은 신체적 약점 때문에 개인이 속하거나 귀속되기를 바라는 사회나 집단에서 배제되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이유진은 그 믿음의 원인을 외모중시적 사회풍토에서 찾고 있다. “여자를 판단할 때 세상의 잣대는 외모를 기준으로”(156쪽) “예쁘면 착하고, 못생기면 성격도 개차반이라고”(155쪽) 여기는 사회 풍토를 내세운다. 김벌리 엘리나 버그먼에 따르면, 여성이 성형을 선택한 것은 가부장적 사회 내의 여성 이미지가 낡은 반응, 즉 “자기 비하와 그것이 초래한 결과, 외모에 대한 강박적 관심, 자신의 자질과 적성에 대한 폄하, 그리고 미모를 통해 얻으려는 보상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사회적 성취에 대한 낮은 기대 수준”이 낡은 결과이다. 가부장제 사회의 젠더 정치가 여성이 성형을 선택하게 하는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다.³³⁾ 이유진이 파악한 외모중시적 사회풍토, 그러니까 몸이 영혼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통념은 그녀의 편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둘 만큼 단순하고 소박하다. 그러한 사회풍토에 대한 통찰 대신 그녀는 오랫동안 지속된 외모 차별적 경험이 대인관계의 예민성, 우울증, 열등감, 자살 충동 등으로 발전했던 자신의 경험을 초점화하여 토로하고 있다.³⁴⁾ 그것만으로도 그녀가 성형을 선택한 이유를 정당화하고,³⁵⁾ 독자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그녀의 내면세계를 공유하도록 이끌고 있다. 성형 과정의 고통과 고민들이 선택 과정의 것들과 겹쳐 있어 독자들의 공감대를 두텁게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성형의 신화를 뒷받침하는 것은 의료진에 대한 이유진의 믿음이 수술 이후에도 건재하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성형의 부작용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성형에 뒤따르는

33) 샌더 L. 길먼, 위의 책, 58쪽.

34) 변금순 외, 『신경정신의학』 제38권 제1호, 1999, 94~103쪽.

35) 여기에서는 성형이 외모 콤플렉스를 치유하는 동시에 조장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분홍 돼지” 이유진이 성형미인으로 거듭나고 그 후 당당하게 자신의 꿈에 도전하는 과정만 초점화해서 읽는다면, 성형은 외모 콤플렉스를 ‘완벽하게’ 치유한다는 대중적 믿음을 유포하고 역으로 외모 콤플렉스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위험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때문에 성형 전후 망설임과 두려움이 잔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그러한 고민들이 의료진들에 대한 믿음과 환상으로 채워지면서 생략되어 있다. 그녀는 성형수술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언니 유희에게 “방송에 나올 정도면 최고수준”(34쪽)이라고 “검증된 분”이라며 의료진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내비친다. 그것이 대중매체에 대한 대중들의 환상이 결합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그녀는 “기대 이상”의 수술 결과를 보고 의료진에 대한 믿음과 고마움을 눈물로 화답한다. 수술 이후에도 성형의 부작용을 의심하기보다 주변인들의 찬사에 당혹스러워할 정도이다. 그만큼 의료진들에 대한 이유진의 믿음은 성형의 신화를 뒷받침한다 하겠다. 이러한 점은 독자들에게 성형에 대한 유혹 혹은 의존을 양산할 위험을 안고 있다.

문제적인 것은 성형의 신화를 재현하는 성형미인 이유진이 겪는 자아 정체성의 혼란이다. 성형미인 이유진은 변화된 몸의 정체성에 비해 자아 정체성을 쉽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외모는 그녀가 원하던 모습보다 훨씬 아름다워졌지만, 내면은 옛날 그대로 아직도 자신감이 결여된 소심한 성격 그대로”(41쪽)인 그녀는 성형 이전의 이유진과 이후의 이유진이 결합되어 있다. 더욱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41쪽) 악몽은 그녀가 성형 이전의 이유진을 거부할수록 오히려 거부당하는 성형 이후의 이유진을 발견할 뿐이라는 사실을 환기한다. 그렇기에 동생 유희에게 “예전 모습이 애벌레라면 지금은 아름다운 나비인데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41쪽) 있는 것으로, 로건에게는 “어떤 남자도 해코지 하지 않을 것”이라 믿기 어려운 확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드러난다. 성형 이전의 이유진과 이후의 이유진의 혼재 속에서 그녀는 어느 것도 진짜 이유진의 실체를 갖지 못한다. 성형 이전의 이유진도 성형 이후의 이유진도 진짜 ‘나’의 행세를 하는 가짜 ‘나’, 시물라크르를 보여 줄 뿐이다. 특히 성형미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하는 심리는 자아 정체성의 혼란과 겹쳐 존재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유진은 외양만 성형의 신화를 ‘통과’했을 뿐 내면은 ‘통과’했다고 볼 수 없는 셈이다.

둘째, 가수로서 '통과'는 성형미인이라는 육체자본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절반의 성공으로 끝맺고 있다. 이유진이 「도전! 신데렐라」에 참여한 이유 중 하나는 “스포츠라이트를 받으며 수많은 관중들에게 자신의 노래를 들려주고, 환호성을 받는 그런 황홀한 꿈”(17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였다. 성형미인 이유진은 “분홍 돼지”였던 과거에 비해 그 꿈에 한 걸음 다가서는 데 유리하다. 그녀가 루비아나 클럽가수가 되고 YN 음반기획사의 오디션 제의를 받은 것은 실력 이전에 미모 때문이다. 그만큼 ‘성형미인’이라는 기표는 가수의 꿈을 실현시키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³⁶⁾

그러나 성형미인이라는 육체자본은 “수많은 관중들”의 가수로서 ‘통과’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그것은 미용성형에 대한 젠더화된 시각에 기인한다. 성형을 여성적인 행위로 규정짓는 사회적 인식은³⁷⁾ 그러한 여성을 허영에 찬 존재, 진정성을 결여한 위선자, 부도덕한 존재 등으로 낙인찍는 행위와 결합되어 있다.³⁸⁾ 이러한 시각 탓에 이유진은 성형 사실을 밝히는 순간 고향 사람들에게 “경멸조로 내려다보는 눈빛”(43쪽)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성형미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면 구획정리를 당”(34쪽)해 가수로 성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예감하고 있다. 때문에 그녀는 지인들뿐 아니라 대중들에게 성형 사실을 숨기며 그것이 밝혀졌을 때의 반응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서도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버리지 않는다. 결국 이유진은 성형 사실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확인되기까지 두려움과 기대감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독자들에게 그녀의 고민을 함께

36) 3장에서 밝혔던 육체자본이 경제자본과 사회자본으로 전환되는 지점과 맞물려 있다.

37) 미용성형에 대한 젠더화된 시각은 성차와 무관하게 여성의 성형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반면 남성의 성형에 대해서는 엄격하다는 최근의 한 연구결과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그것은 여성은 육체적 아름다움을 가꾸어야 하는 존재라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인하는 바 크다. 임인숙(2005), 앞의 글, 105쪽.

38) 임인숙(2002), 앞의 글, 194~195쪽과 센터 L. 길먼, 앞의 책, 58~61쪽 참조. 서정희의 글은 이러한 시각을 반영한 연구이다. 서정희, 「여자 대학생 소비자의 허영과 성형요구-부산, 울산 및 김해를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제8권 제1호, 한국소비문화학회, 2005, 1~13쪽.

하기를 기대하고 성형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안티가 곳곳에 생겼어. 노래하나 잘 부른다고 모든 게 용서는 안 된다고. 인간성도 중요하다. 모든 걸 공짜로 해결하려는 심보가 맘에 안 든다는 등 여러 가지 유언비어까지 돌고 있어. (중략)³⁹⁾ 이유진이 나한테 성형수술을 밝혔을 때 신비주의 컨셉을 잡지 말고 직접 그대로 보여 줘야하는 건데. 그럼. 이렇게까지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을 거야.”(332~333쪽)

인용문은 이유진의 성형 사실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후의 반응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중들의 반응은 “인간성”이나 “모든 걸 공짜로 해결하려는 심보” 등 이유진을 비판하는 것 일색이다. ‘얼굴 없는 가수’라는 “신비주의 컨셉”도 대중들에게 성형 사실을 눈가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취졌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반응은 진정성, 도덕성, 허영을 문제 삼는 미용성형에 대한 젠더화된 시각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아울러 “가수는 노래만 잘 부르면 됐지.”라고 이해해줬던 토니 사장의 말이나 그것에 일말의 기대감을 지녔던 것과 달리 당면한 현실은 분명하게 괴리되어 있다. 때문에 “어쩌면 영영 가수로서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332쪽)은 현실화되고 만다. 이유진은 작곡가로서 활동하며, 로건의 도움으로 자신만의 팬들을 위한 무대에만 나설 수 있을 뿐이다. 결국 대중들은 성형미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가수로서 ‘통과’를 허용하지 않은 셈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 소설이 미국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어느 정도 기인한다. 작가는 미국사회가 한국사회보다 성형에 대해 엄격하고 보

39) 중략 부분은 가수로서 ‘통과’가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시각과도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사회가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그 전제는 가수로서뿐 아니라 연인으로서 ‘통과’에도 한계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단편적인 인식 수준에서 언급되거나 이유진의 남매에게 적용되지 않는 등 그 전체가 허약하게 설정되어 있다. 결국 그것은 미국사회라는 특수성을 보여주기 위한 작가적 전략으로 보이지만, 효과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셈이다. 오히려 이 소설은 미국사회를 통해 한국의 외모지상주의적 사회 풍토를 가능하는 반사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때문에 인종차별적 전제는 소설 분석에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하였다.

수적이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소설에서 한국사회를 “성형천국”으로 꼬집은 <오프라 윈프리 쇼>⁴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미국사회와 차별화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사회와 거리두기를 통해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셋째, 결혼으로 ‘통과’는 성형미인이라는 ‘사실’이 장애요소로 작용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성공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그것은 험난한 장애요소를 극복할수록 사랑의 영원성과 낭만성을 강조하는 로맨스 소설의 장르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유진과 로건의 사랑에 계급적이고 인종적 차이는 큰 갈등을 낳지 않는다. 그들의 사랑에 결정적인 장애요소로 부각되는 것은 이유진이 성형미인이라는 ‘사실’이다. 성형미인이라는 육체자본이 이유진이 로건과 사랑을 꿈꾸고 그들의 관계를 단속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때 그 관계는 이유진이 성형미인이라는 ‘사실’을 감춘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이유진은 로건에게 성형미인이라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한다. 동생 테드가 그것을 알아채자 위기감을 느끼고, 로건의 단호한 입장을 예들려 확인한 후 절망감을 맛보기도 한다. 이유진은 앞치락뒤치락하며 심각한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데, 그녀에게 몰입한 독자들은 조마조마한 그녀의 감정을 함께 공유하며 상황의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은뚱을 성형수술 했다는 소리이군. 완전히 짝 바꾼 다음에 나 같은 부유한 남자를 잡고 싶었던 거야? 아무리 성형수술이 유행한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180도로 사람의 외모가 바뀔 수 있는 거야? 완전히 딴 인물이군. 코 하나도 아니고 이진...완전히 모두 뜯어고친 성형수술인데. 한 마디로 ‘인조인간’이군.”

이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지다 못해 파랗게 질렸다. 그녀의 성형수술을 알게

40) 2004년 10월 6일 미국 CBS TV에서 방송된 <오프라 윈프리 쇼>는 세계 17개국 30세 여성의 삶을 비교하면서 한국 여성들에 대해 ‘서구적인 미모를 갖고 싶어 하는 열등성을 지녔고 한국은 성형수술의 천국’이라고 소개했다. 김정현, 앞의 글, 26쪽.

되면 그가 놀란 반응을 보일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적대적인 모습으로 바뀔 거라고는 미처 몰랐다. 그녀가 사람을 죽인 살인마도 아니고, 남의 등을 친 사기꾼도 아니고, 정치범도 아닌 단순히 외모를 성형수술한 것뿐이었다. 그리고 왜 성형수술을 결심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걸까. 그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327쪽)

인용문은 로건이 이유진의 성형 사실을 안 직후의 반응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로건은 이유진이 성형미인이라는 ‘사실’을 속였다는 점에 크게 분노한다. 그는 성형수술 자체나 그것을 알리지 않은 것 모두 “사기”로 간주하며, 그녀를 “비정상적인” “인조인간”에 불과하다고 비난한다. 이때 오해로 빚어진 그녀의 이미지, 즉 “돈과 성공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악녀”(328쪽)의 이미지는 보다 “적대적”으로 변한다. 더 이상 그녀는 매력적인 성적 대상도, 어렴풋하게나마 사랑의 감정을 일깨웠던 대상도 아니다. 그런 로건에게 이유진은 “왜 성형수술을 결심했는지” 물어주고 이해해 주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음을 참담하게 인식하는 것뿐이다. 성형미인이라는 ‘사실’이 로건에게 ‘통과’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셈이다.

그러나 로맨스 소설은 거의 행복한 결말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결말의 주도권이 남성에게 있다는 점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결국 결혼의 ‘통과’는 전적으로 로건에게 좌우된다. 로건이 그토록 혐오하는 성형미인인 그녀를 받아들여느냐의 여부가 결혼의 ‘통과’를 결정짓는다. 그는 이유진이 행방을 감춘 후에야 「도전! 신데렐라」 방송을 찾아본다. 그토록 그녀가 바랐던 “왜 성형수술을 결심했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서이다. 그는 「도전! 신데렐라」를 보며 그녀의 과거 상처들에 가슴 아파하고, 그녀의 행선지를 추적해 한국행을 결행한다. 그것도 그가 이유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말이다. 결말에 와서야 사랑한다는 사실 자체는 사랑의 정당화의 기제로 존재하는 자기 준거적 사랑이 결혼 제도 와 결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맨스 소설이 “가부장적 텍스트”라는 레드웨이의 지적은⁴¹⁾ 이 소설에서도 예외적이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이 소설은

육체자본을 토대로 한 열정적 사랑과 자기준거적인 낭만적 사랑을 위태롭게 결합시키고 있다 하겠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로건의 내면적 변화이다. 그는 “결혼은 사업”(163쪽)이며, “여자는 단순히 필요에 의한 존재”(191쪽)에 불과하다고 여길 만큼 여성을 사물화하고 대상화한다. 이러한 인식은 사업가로서 “냉혈한”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마초적 남성상을 강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로건이 성형미인인 그녀를 받아들이고 결혼하는 순간, 이러한 마초적 남성상은 사업에만 국한되고 자상한 남성상으로 변화한다. 그것은 여성이 멋진 남성에게 사랑받는다든 대리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로맨스 소설의 장르적 특성이기도 하다. 이때 장르 독자들은 ‘멋진’ 남성의 외부적 조건보다 ‘사랑받는다 느낌’을 초점화한다.⁴¹⁾ 남성이 ‘냉혈한’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여성을 자상하게 대하는 태도에 감동받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성형수술과 그 이후 보여준 ‘통과’의 여러 양상은 외양적인 측면에서 ‘신데렐라’로 거듭나는 것을 제외하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 성형의 신화, 특히 자신감을 회복하고 당당한 여성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신화는 말 그대로 신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소극적이고 뚱뚱한” 이유진이 외양적으로 ‘신데렐라’로 변신하지만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심각하게 겪을 뿐 아니라 가수의 ‘통과’가 좌절되고 가까스로 결혼을 ‘통과’하는 과정은 ‘신데렐라’가 아닌 ‘신데렐라 콤플렉스’⁴²⁾를 가진 여성에 가깝기 때문이다. 결국 결혼의 ‘통과’는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지닌 여성의 재생산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소설의 제목과 달리 성형이 ‘신데렐라’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을 유보하고 환상에 기댈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환기시켜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독자들

41) Janice Radway, *Reading the Romance: Women, Patriarchy, and Popular Literature*, London: Verso, 1987, p.217.

42) 정이원, 「그래요, 데렉은 나를 사랑했어요-로맨스 소설의 숨겨진 매력」, 『북페덱』 2004년 여름호(제5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4.8, 113쪽.

43) 신데렐라 콤플렉스는 주로 억압된 태도와 불안이 뒤엉켜 여성들이 그들의 의욕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는, 일종의 미개발 상태로 묶어두는 심리상태를 일컫는다. 콜레트 다울링, 이호민 옮김, 『신데렐라 콤플렉스』, 나라원, 1989, 32쪽.

의 해독이 지배적인 가부장적 소비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울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 둔다.⁴⁴⁾ 그것은 독자들 개인의 편차를 고려한다면, 이 소설은 대안적이거나 저항적 해독의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성형수술 자체뿐 아니라 성형한 여성의 자아 정체성의 혼란과 신데렐라 콤플렉스 회귀 현상, 그리고 지난한 사회적 '통과'가 환기하는 당대 사회현실 등을 다시금 직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결 론

이 글은 창작 로맨스 소설 『성형 신데렐라』를 대상으로 몸의 서사화방식을 로맨스 소설의 장르적 규범 및 소통방식과 관련지어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성형 신데렐라』는 여성 주인공 이유진의 '성형'을 새로운 사건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둘러싼 작중인물들의 다양한 갈등을 서사의 전면 에 내세우고 있었다. 논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유진의 '성형'은 리얼리티 프로그램 「도전! 신데렐라」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동아 TV에 방송 중인 동명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도전, 신데렐라>의 과정을 패러디하고 있었다. 이유진이 「도전! 신데렐라」에 참여하는 것은 <도전, 신데렐라>와 동일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이지만, 그 선정방식은 <도전, 신데렐라>의 선발단계를 축소시켜 극적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이유진의 성형 과정은 <도전, 신데렐라>처럼 3개월 동안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밀착 취재되어 '先체험 後방송'된다. 소설에서는 마지막 생방송을 초점화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유진의 성형을 보다 극적이고 감동적으로 재현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했다. 그러나 대중매체를 통한 성형 과정은 지배적 해독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이유진의 성형이 대중매체가 유포하는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획일화된 이미지를 따른다는 점에서

44) 물론 독자들이 성형의 신화를 신데렐라의 환상으로 채워 해독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여성의 몸의 식민화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TV 방송과 다양한 의료진 등이 결탁한 소비자본주의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가부장적 소비자본주의 문화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힘들었다. 그런데도 그러한 현실을 당당히 공론화함으로써 독자들 스스로 당면한 현실을 재정의하고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었다.

다음으로, 성형 이후 이유진의 삶과 사랑은 성형미인이라는 육체자본을 토대로 전경화되어 있으며, 성형 이전의 것을 참조적 서사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육체자본이 서사를 추동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첫째, 성형미인이라는 육체자본을 토대로 이유진의 가수의 꿈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서사화하고 있었다. 이때 성형미인이라는 육체자본은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고 있었을 뿐 아니라 경제자본과 사회자본의 확대를 보여주고 있었다. 둘째, 성형미인이라는 육체자본은 이유진이 로건과 사랑을 꿈꾸고 실현하는 과정을 서사화하고 있었다. 그것은 로맨스 소설의 창작과 향유방식을 따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설의 제목처럼 성형이 이유진을 신데렐라로 '통과'시키는 양상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외양적인 '통과'는 성형의 신화를 재현하지만 그 결과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가수로서 '통과'는 성형미인이라는 육체자본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지만 결정적인 장애요소로 작용함으로써 절반의 성공으로 끝맺고 있었다. 특히 대중들이 지닌 성형에 대한 젠더화된 시각이 '통과'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유진의 꿈은 단발적인 시도에 그치고 말았다. 셋째, 결혼으로 '통과'는 성형미인이라는 '사실'이 결정적인 장애요소로 작용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성공적인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 '통과'는 남성 주인공 로건에게 주도권이 주어져 있는, 전형적인 로맨스 소설의 문법을 따르고 있었다. 이때 그들의 사랑은 열정적 사랑과 낭만적 사랑이 결합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통과'의 세 양상들은 독자들이 주인공의 내면에 자신을 이입하고 사건에 몰입하여 감동받도록 서술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도 신데렐라의 '통과'가 성형의 신

화와 달리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독자들이 지배적 해독으로 치우치지 않을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었다.

두루 알다시피 한국사회에서 성형은 대중화된 화두이지만 여전히 곱끄러운 사회적 인식을 동반하고 있다. 로맨스 소설 『성형 신데렐라』는 이러한 사회적 현실과 인식을 미국사회라는 배경으로 삼아 에들러 맥락화하고 있었다. 성형을 비롯한 몸 관리 열풍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방송매체와 그것과는 멀리 거리를 두는 보수적인 재벌사회 사이에 놓여 있는 주인공의 삶과 욕망을 통해 중심 잡기 힘든 현대 여성의 자화상을 엿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이 소설은 로맨스 소설의 문법에 따라 주요 독자층인 20~30대 여성들이 겪음직한 자신의 꿈과 사랑에 대한 고민들을 성형에 대한 갈등에 얹어 소박하게 풀어내고 있었다. 장르적 특성과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후기 근대사회 한국사회에서 ‘성형’이나 ‘몸’을 둘러싼 하위문화 주체들의 삶과 욕망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리라 생각한다.

- 핵심어: 로맨스 소설, 김경화, 『성형 신데렐라』, 몸, 성형, 육체자본, 자아 정체성, <도전, 신데렐라>, 「도전! 신데렐라」, 가부장적 소비 자본주의 문화, 참조적 서사전략, 자아효능감, 통과, 열정적 사랑, 낭만적 사랑, 신데렐라, 신데렐라 콤플렉스.

<참고 문헌>

1. 1차 문헌

김경화, 『성형 신데렐라』, 환상미디어, 2006, 1~400쪽.

<http://www.dongahtv.com>

2. 2차 문헌

김은실,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하나의문화, 2001, 1~359쪽.

김정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수용 특성에 관한 연구-〈도전, 신데렐라〉를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5, 1~82쪽.

김주현, 「여성의 몸과 외모 꾸미기-금욕주의와 나르시시즘을 넘어서」, 『미학』 제47집, 한국미학회, 2006, 25~75쪽.

변금순 외, 『신경정신의학』 제38권 제1호, 1999, 94~103쪽.

서정희, 「여자 대학생 소비자의 허영과 성형요구-부산, 울산 및 김해를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제8권 제1호, 한국소비문화학회, 2005, 1~13쪽.

송경아, 「장르문학과 순문학의 벽을 넘어서」, 『북페덱』 2004년 여름호(제5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4.8, 50~61쪽.

신혜경, 「페미니스트 미술에서의 몸의 도전과 한계-나르시시즘과 그로테스크의 경계를 넘어서」, 『미학』 제50집, 한국미학회, 2007, 139~164쪽.

심광현, 「몸의 문화정치학을 위한 시론: 기하학적 육체 대 위상학적 몸」, 『인문학연구』 제9집, 한림대 인문학연구소, 2002, 85~97쪽.

심광현, 「육체, 무엇이 문제인가?」, 『문화과학』 제4호, 문화과학사, 1993.9, 64~94쪽.

우지연, 「꾸미는 세계가 있는 자만이 장르를 지지한다」, 『북페덱』 2004년 여름호(제5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4.8, 38~49쪽.

윤태일, 「여성의 날씬한 몸에 관한 미디어 담론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48권 제4호, 한국언론학회, 2004, 5~31쪽.

이영자, 「몸권력과 젠더-푸코적 분석틀에서 본 “날씬한 몸” 관리」, 『한국여성학』 제22권 제4호, 한국여성학회, 2006, 197~233쪽.

임인숙, 「다이어트의 사회문화적 환경: 여대생의 외모차별 경험과 대중매

- 체의 몸 이미지 수용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8권 제2호, 한국사회학회, 2004, 165~189쪽.
- 임인숙, 「한국사회의 몸 프로젝트: 미용성형 산업의 팽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6권 제3호, 한국사회학회, 2002, 183~205쪽.
- 정이원, 「그래요, 데렉은 나를 사랑했어요-로맨스 소설의 숨겨진 매력」, 『북페덱』 2004년 여름호(제5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4.8, 110~117쪽.
- 정재철, 「한국의 여성 몸담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몸의 시대, 살빼기와 성형 열풍”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7권 제1호, 한국지역언론학회, 2007, 292~318쪽.
- 정주원, 「몸의 소비문화적 의미와 현상에 대한 고찰」, 『소비문화연구』 제9권 제1호, 한국소비문화학회, 2006, 83~101쪽.
- 최옥선, 「여성잡지에 나타난 몸담론 연구-성형의료산업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제46집, 한국출판학회, 2004, 261~313쪽.
- 한미화,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장르소설-국내 창작 로맨스 소설의 현황」, 『북페덱』 2004년 여름호(제5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4.8, 191~197쪽.
- 한서설야, 『다이어트의 성정치』, 책세상, 2007, 1~166쪽.
- 브라이언 터너, 임인숙 옮김, 『몸과 사회』, 몸과마음, 2002, 1~488쪽.
- 삐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下, 새물결, 1995-1996, 1~917쪽.
- 샌더 L. 길먼, 광재은 옮김, 『성형수술의 문화사』, 이소출판사, 2003, 1~510쪽.
- 앤소니 기든스, 권기돈 옮김,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새물결, 1997, 1~368쪽.
- 콜레트 다울링, 이호민 옮김, 『신데렐라 콤플렉스』, 나라윈, 1989, 1~275쪽.
- 크리스 쉘링, 임인숙 옮김, 『몸의 사회학』, 나남출판, 1999, 1~314쪽.
- C. 라마자노글루 외, 최 영 외 옮김, 『푸코와 페미니즘』, 동문선, 1997, 1~357쪽.
- Alexandra Howson, *The Body in society*, Ploity Press, 2004, pp.1~198.
- Janice Radway, *Reading the Romance: Women, Patriarchy, and Popular Literature*, London: Verso, 1987, pp.1~276.
- Niklas Luhmann, *Love as Passion: The Codification of Intimacy*, trans., Jeremy Gaines and Doris L. Johns, Standford UP, 1998, pp.1~247.

<Abstract>

Challenges and Limits of Beautiful Body in Romance Stories

- Focusing on *Cinderella Makeover*

Choi Mi-ji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an original romance story *Cinderella Makeover* by comparing its narrative mode of body to conventions and communication methods of traditional romance stories. In *Cinderella Makeover*, a 'plastic surgery' that the heroine Lee Yu-jin underwent was created as a new incident and internal and external conflicts from the incident were at the heart of its narrative.

First of all, Lee, Yu-jin had a 'procedure' through an U.S. reality television program 'Becoming Cinderella' and the story is a parody of the whole process of <Becoming Cinderella>, which is a Korean version of the U.S. reality program aired by Donga TV. Participation in the show and production format were similar, but selection process and broadcasting format were represented in more dramatic and touching ways. It was not, however, free from the dominant ideology of patriarchal consumption-obsessed capitalism. Nevertheless, the story squarely made such realities public, allowing readers to redefine the reality they face and to try to fix it.

Next, the post-surgery life and love of Lee, Yu-jin is described based on the physical capital of being an artificial beauty, employing the pre-surgery story as a referential narrative strategy. First, the story tells about the journey of how Lee, Yu-jin achieved her dream of becoming a singer after the makeover. In this process, her physical capital of being a beauty through a plastic surgery not only strengthens

her self-efficacy and but represents the expanded scope of economic capital and social capital. Second, her love story with Rogan was described through this physical capital, which is following the conventional methods of creating and enjoying romance stories.

Lastly, as seen in its title, plastic surgeries were represented as a 'passage' for Lee Yu-jin to become a Cinderella in three aspects. First, the superficial 'passage' is just another success story of the medical procedure, but it also brings attention to her confusing self-identity that resulted from the procedure. Second, her physical capital gives her an easy access to the 'passage' of becoming a singer, but, at the same time, it serves as a critical obstacle to her career. Third, her makeover becomes a decisive hurdle in the 'passage' to a marriage, but the story also displays how she successfully overcomes the difficulties. Regarding this 'passage', the male character Rogan takes the initiative as is shown in most of the romance stories. Their love can be characterized by a combination of passionate and romantic love. The various aspects of these 'passages' have a specific narrative technique in common by which readers can emphasize with the characters and they can be immersed in and moved by the story. The 'passage' of Cinderella, however, is not a happy-ending like other successful stories of plastic surgeries, so it is highly likely that readers may not be swayed by one dominating interpretation of the story.

- Keyword: Romance, Kim, Kyung-hwa, *Cinderella Makeover*, body, plastic surgery, physical capital, self-identity, <Becoming Cinderella>, patriarchal consumption-obsessed capitalism, referential narrative strategy, self-efficacy, passage, passionate love, romantic love, Cinderella, Cinderella Complex